

10월 5~7일 '광주세계 아리랑 축전' 공식프로그램 발표

상생·평등·자유 '빛고를 아리랑' 광주항쟁의 기억들이 펼쳐진다

'빛고를 아리랑-상생·평등·자유.'
오는 10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리는 '광주세계 아리랑 축전'의 프로그램이 확정됐다.

행사를 진행하는 광주문화재단은 2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월5일~7일까지 광주공원 야외무대 등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의 공식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아리랑 축전은 중국이 아리랑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아리랑이 대한민국의 자산임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재단측은 시인 고은 씨를 추진위원장으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총감독으로 선임, 축제를 준비해왔다.

▲국악인·대중가수 등 출연진 다채

6일과 7일 두차례 공연되는 주제공연 '빛고를 아리랑'은 총체극 형식의 무대 공연 작품이다.

직접 대본과 연출을 맡은 김명곤 총감독은 '빛고를아리랑'에 대해 "광주항쟁의 내용이 직접적 설명으로 서술되지 않고 주인공 빛고를 사내



한영애

주제 공연의 음악은 황석영씨의 아들인 작곡가 황호준씨가 맡았으며 광주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영상 디자이너로 참여한다.



'빛고를 아리랑' 주연을 맡은 팜핀현준·박애리 부부.

김명곤 예술감독 총체극 형식 주제공연 대본·연출
YB·백두산·정태춘 박은옥 부부 등 출연 무대 빛내
고싸움 놀이·흙피리 대합주·게릴라 댄스 등 다채

를 중심으로 시민이 겪었던 이미지, 기억들이 펼쳐진다"며 "마지막 3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우리 운거레의 아리랑 합창과 어우러지도록 구성해 영상과 안무, 음악 속에 스며들 광주항쟁이 상징적·암시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팜핀현준이 극을 이끌어 가는 '자전거 청년' 역을 맡았으며 그의 아내이자 소리꾼 박애리씨가 '아리랑 여인' 역으로 호흡을 맞춘다. 또 윤진철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이 '빛고를 사내' 역을 맡았으며 광주시립무용단, 광주소년소녀합창단, 놀이패 신명 등이 출연한다.

'상생의 아리랑', '평등의 아리랑', '자유의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공연에는 다양한 출연진들이 무대에 오른다.

록그룹 YB와 백두산이 대한민국 아리랑, 즉흥 아리랑 등을 들려주며 창작국악그룹 슬기동, 21세기 한국 음악프로젝트 대상 수상팀인 국악 뮤지션 '프로젝트 락 그룹',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 가수 정태춘·박은옥 부부, 한영애 등이 출연한다.

또 민요 걸그룹 '아리수', 영화 '두레소리'에 출연했던 '두레소리합창단', 아카펠라 그룹 '보이쳐', 연희집단 'The 광대' 등도 무대를 빛낸다. 또 동편제 명창 송순섭, 호남우도

농악 명인 김동언, 타악그룹 '일수', 광주연합 풍물패 '광대' 등 지역 예술인들의 참가도 눈길을 끈다. 민중가요 '남을 위한 행진곡'의 주제 선율을 활용한 '무등 진혼'은 광주 출신 피아니스트 박의혁이 편곡과 연주를 맡았다.

그밖에 중국연변가무단의 연변 아리랑과 장백산 아리랑,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 가무단의 개레이스끼 아리랑도 눈길을 끈다.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10월 5일 광주공원 광장에서 열리는 아리랑 고싸움 놀이가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고싸움 보존회 회원 300명과 외국인 등 600여명이 직접 고를 들고 축전에 참여하며 시민들이 직접 쓰고 그린 소망기 깃발이 주변을 장식한다.

1만 5000여명이 시민들이 '빛고를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름다운 것들'을 연주할 흙피리 대합주(광주월드컵 경기장), 광주시 5개 구 94개 동민들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아리랑 경연대회-오구동락', 이번 축전의 로고와 엠블럼을 제작한 공재 진영근 선생의 서·화·각 전시회, 아리랑 교육 체험극, 게릴라 댄스 등이 주프로그램이다.

/김미민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예술시장에 들어온 '갤러리 대인'

대인시장이 '문화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소박한 삶의 풍경이 배어있는 시장에 전시관과 작가들의 커뮤니티 카페, 작가들의 거주 공간, 작품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가 조성되는가 싶더니, 상업 갤러리까지 생겨면서 지역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시대'로 자리를 확고히하게 됐다.

갤러리 대인(관장 차수미)은 24일 대인예술시장 안내센터 옆에서 갤러리를 오픈하고 개관 기념전을 갖는다. 서양화가인 차 관장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지역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개관 배경을 설명했다.

갤러리 설계는 파리에서 조형 예술을 전공한 조강현씨가 맡았고 갤러리와 함께 쉼터 및 지역 예술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사용될 카페와 아트 상품 판매 코너도 마련했다.

'예술시장'이라는 별칭이 붙은 대인시장의 아이콘 역할 뿐만 아니라

차수미 관장 "어려운 지역작가들에 도움주고 싶어"
조강현 등 8명 증견작가 31일까지 '행복한 만남'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지역 미술 발전에 보탬이 되는 문화 살롱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다. 31일까지 열리는 개관 기념전은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조강현,

윤남용, 고근호, 김종경, 김영설, 박문수, 김해성 등 8명의 증견 작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진다. 문의 010-2951-1708.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주여성들 삶의 이야기가 빼곡히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림으로 만든' 출간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 책으로 냈다.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용진재단의 지원을 받아 펴낸 '그림으로 만든 사랑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여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빼곡히 담겨 있다.

타이완에서 한국 고속철도 건설

회사에 다니던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시집은 왕훤진씨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낯선 한국에서의 다양한 체험담,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글로 엮어낸 것을 비롯, 일본 출신 시라이시유코·베트남 출신 오테라반씨 등 13명의 한국 생활 이야기가 담겨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느끼는 어색하면서 낯선 풍경, 다른 언어와 이

국적 문화 등 이주 여성들이 겪었던 한국 체험기가 생생하게 그려졌다.

이주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지식 뿐만 아니라 책장을 넘길수록 이주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등 한번쯤 고민해야 할 부분도 읽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책은 도끼다' 박용현

인문학강좌 참가자 모집

'책은 도끼다', '인문학으로 광고하다'의 저자 박용현 TBWA코리아 ECD(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8주간의 강연회를 단독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젊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오는 10월 1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8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8주 간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 '책은 도끼다'에 이은 후속작을 발간할 예정이다.

참가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참가 신청은 28일까지 예스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개그맨 전유성에게 듣는 '웃음'

광주MBC 교양강좌, 30일 광주은행 본점서

광주MBC(대표이사 사장 서경주)는 30일 오후 2시 광주은행 본점 3층 강당에서 개그맨 전유성씨를 초청, 교양강좌를 연다.

매월 한 차례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 전유성씨는 '웃음을 배웁니다'를 주제로 자신의 개그 철학과 인생 이야기, 풍부한 아이디어 등을 통해 웃음과 행복을 선사할 계획이다.

그는 특히 강의에서 4년 전 방송활동을 접고 경북 청도 한 시골마을로 내려가 '코미디시장'이라는 개그맨사

관학교를 만들고 후배 개그맨을 양성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특유의 입담으로 풀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마다 북돋아 되면 반려견들을 위해 열고 있는 '개나소나콘서트' 등 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줄 계획이다. 문의 062-360-2622. /김지을기자 dok2000@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주류서비스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Be natural Be delicious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